

통산 1100타점·1300경기 출전·1600안타
11년연속 두자릿수 홈런·6년연속 200루타

‘기록의 사나이’ 최형우

기록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는 “꾸준하게 해온 결과”라며 한결같은 소감을 말했다. ‘꾸준함’이 이야기해 온 최형우가 이번에는 “잘 살아온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최형우는 지난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4-1로 앞선 2회 1사 3루에서 우측 2루타를 터트리면서 시즌 69번째 타점을 올렸다. 이는 최형우의 통산 1100번째 타점이기도 했다.

삼성 라이온즈 시절이던 2011년 118타점으로 처음 100타점을 넘은 최형우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세 자릿수 타점을 올리고 있다. 꾸준하게 타점을 터트린 최형우는 이날 KBO리그 통산 9번째로 1100번째 타점의 주인공이 됐다.

‘꾸준함’으로 이야기되는 최형우는 올 시즌에도 차곡차곡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최형우는 자신의 1300경기 출장(68번째)날이었던 4월 6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1500안타(30번째)를 만들며, 올 시즌 기록 행진을 시작했다.

5월 23일 kt 광주경기장에서 200루타(20번째)에 도달한 그는 6월 23일 고척원정에서는 이보근을 상대로 솔로포를 날리면서 11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통산 9번째 기록이었다.

그리고 7월 26일 대전 원정에서 25번째 1600안타 주인공이 된 최형우는 3일 뒤 대구에서는 2800루타(17번째)까지 채웠다. 8월에도 최형우의 기록은 계속됐다. 9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6년 연속 200루타

(11번째)를 기록한 그는 14일에는 1100타점 주인공까지 됐다.

15일 LG와의 홈경기에 앞서 최형우는 “기록이 쌓일 때마다 뿌듯하다. 군대 가기 전에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 기록들이 채워지니까 잘 살아왔다는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말했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매 시즌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최형우의 야구 인생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전주고를 졸업하고 2002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포수로 프로에 뛰어들었다. 데뷔 첫해 4경기에서 2개의 2루타를 기록했다. 2003년 1군 기록이 없는 최형우는 2004년 두 경기에 나와 두 번의 타석에서 삼진 하나만 기록했다. 그리고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는 2005시즌이 끝나고 방출이 됐다.

하지만 최형우의 야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2006년 경찰야구단 창단 멤버로 새로운 출발을 한 그는 퓨처스리그에서 절치부심하며 힘을 키웠다. 퓨처스리그를 지배한 최형우는 2008년 다시 삼성 유니폼을 입고 1군 무대로 돌아왔다.

북구 첫해 19개의 홈런 포함 106개의 안타를 터트린 그는 이해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프로 데뷔 7년 만에 진짜 야구를 시작하는 그는 묵묵히 그리고 강렬하게 매 시즌을 보내면서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픔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최형우의 기록은 더 특별하다.

최형우는 “내가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도



지난 1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KIA 최형우가 타격하고 있다. <KIA이거즈 제공>

아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꾸준히 경기에 빠지지 않고 뛰어들면서 이뤄낸 것들이다. 그런 부분에서 나 자신이 기록하

다며 “앞으로도 이대로 꾸준히 걸어가면서 기록들을 채워나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원 광주시철도공사 유도팀 감독과 김새리, 이해경 선수(왼쪽부터).

광주시철도공사 이해경 ‘금빛 메치기’

실업유도선수권...김새리는 등

광주시철도공사 유도팀 이해경과 김새리가 2018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했다.

이해경은 지난 14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48kg급 결승에서 장지영(제주특별자치도청)에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며 반칙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해경은 지난 4월 전국실업연맹최강전에 이어 실업연맹전에서만 두 번째 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57kg급 준결승에 출전한 김새리는 팔꿈치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동메달을

기록했다.

최원 광주시철도공사 유도팀 감독은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 시체육회, 광주시유도회 등 주변의 많은 성원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선수들을 더욱 다독여 더 나은 성적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실업유도연맹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유도회가 주관하는 2018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는 전국의 32개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실업 유도의 왕중왕전으로 16일까지 계속 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현 2회전 진출...세계 3위 델 포트와 맞대결

웨스턴 앤 서던오픈 테니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5위·한국체대)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웨스턴 앤 서던오픈(총상금 566만9천 360 달러) 2회전에 진출했다.

정현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1회전에서 잭 소크(20위·미국)에게 2-1(2-6·6-1·6-2) 역전승을 거뒀다.

1회전을 부진으로 통과한 델 포트로는 키 198cm 장신으로 2009년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선수다.

정현과 델 포트로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다.

정현이 이날 물리친 소크는 지난해 세계 랭킹 8위까지 올랐던 톰 파커 출신이다. 1세트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두 차례나 내주며 2-6으로 기선을 제압당한 정

현은 2세트부터 경기 흐름을 뒤바꿨다.

정현이 2세트에서 처음으로 상대 서브 게임을 따내 3-1로 달아난 상황에서 소크가 메디컬 타임아웃을 불렀다. 허리 쪽에 통증을 호소한 소크는 이후 움직임이 부쩍 둔해진 모습이었다. 결국 정현은 이후 내리 세 게임을 더 가져와 2세트를 6-1로 마무리했다.

기세가 오른 정현은 3세트 게임스코어 2-2에서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연달아 4게임을 따내 승부를 결정지었다.

정현은 지난주 로저스컵에 출전한 예정이었으나 등 부상으로 대회에 불참한 바 있다. 그러나 1주일 만에 세계 랭킹 8위까지 올랐던 소크를 제압하며 이달 말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오픈 전망도 밝게 했다.

정현은 16일 오전 9시 30분 2회전에서 후안 마르틴 델 포트(3위·아르헨티나)를 상대한다. /연합뉴스

덕아웃 T 특특

▲의식했나 봐요 = 올 시즌 KIA 마운드의 마당쇠로 활약하고 있는 황인준은 14일 LG전에서 프로 첫 홈런을 기록했다. 팀이 14-6으로 앞선 6회 임기영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황인준은 6회와 7회를 모두 삼자 범퇴로 막으며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8회에 다시 마운드에 오른 황인준은 연속 안타 등 3안타로 2실점을 했다. 실점은 했지만 3이닝을 지키면서 생애 첫 홈런을 기록한 황인준은 “6·7회를 잘 던졌는데 마무리가 좋지 못해서 아쉬웠다. 8회 오르기 전에 홈런을 이야기해주셔서 괜히 의식했던 것 같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100%라고 하니까 = KIA가 아시아게임 휴식기에 앞서 열리는 마지막 경기인

프로 첫 홈런 황인준 “기록 의식 마무리 아쉬웠죠”

“땀던 상태 100%라고 하니까” 양현종과 동시 출격

16일 시작 롯데전에 양현종과 땀던을 동시에 출격시킨다. 김기태 감독은 15일 경기에 앞서 “땀던의 상태가 100%라고 한다”며 16일 등판을 예고했다. 땀던은 지난 5일 두산전에서 우측 정강이에 공을 맞으면서 재활군이 됐다. 땀던의 정상 출격이 준비되면서 후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겨 두었던 헛타는 이날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전날 선발로 나선 임기영까지 두 명의 선수를 뺀 KIA는 이날 내야수 최정민과 외야수 유재신을 등록했다.

▲잠은 잘 잤어요 = 허벅지 근육 파열로 재활군이 됐었던 외야수 유재신이 LG와

의 홈경기가 열린 15일 엔트리에 재등록됐다. 유재신은 5월 20일 SK와의 경기에서 좌익수로 나서 수비를 하다가 좌측 허벅지 근육 부분 파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만큼 아쉬웠던 부상. 유재신은 “너무 잘하려고 했다. 처음에 슬러밍하면서 잡으려고 했다. 다치는 순간 근육이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서 큰 부상이라는 걸 알았다”고 부상 상황을 돌아왔다. 좋은 페이스에서 당한 부상이라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이 컸지만 유재신은 병원에 입원하고 이틀은 잠만 잤다. 잠이 잘 오더라(웃음). 생각보

다는 일찍 복귀하게 됐다. 수비와 주루에서 팀이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둘 다 좋아요 = ‘캡틴’ 김주찬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였다. 김주찬은 지난 14일 LG와의 경기에서 10-2로 앞선 4회 2사만루에서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19년 차 김주찬의 프로 첫 만루홈런이었다. 그리고 이 홈런과 함께 김주찬은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타점 기록을 5에서 7로 늘렸다. 이날 사이클링 히트에 3루타 하나 부족한 활약을 한 김주찬은 “다리가 좋지 않아서 괜히 욕심부리다가 무리가 올 수 있어서”라며 마지막 타석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또 첫 만루포와 개인 최다 타점 중 어떤 게 더 기쁘냐는 질문에 “둘 다 좋다. 계속 잘 맞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8월 18일(토)
 - ▲전남산악회 8월 18일-19일(일) 무박2일, 강원도 화천, 비수구미, 평화의담, 영주체육관 18일 21:30, 운진각, 양동시장, 광주역 22:00, 두암동휴플러스 22:10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 010 3642 5197, 010 5378 5702
 - ▲광주호산회 8월 18일(토) 남원 여원재 수정봉 구룡폭포,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우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8월 19일(일)
 - ▲광주새무등산악회 8월 19일(일) 전북 진안군(운일암 반일암, 계곡산행), 07:40
- 8월 22일(수)
 - ▲광주청록산악회 8월 22일(수) 경남 산청 정수산(841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8월 25일(토)
 - ▲광주호산회 8월 25일(토) 해파랑길15코스,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5:45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우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 8월 26일(일)
 - ▲광주알프스산악회 8월 26일(일) 경남 산청 이방산 백운계곡, 영주체육관 07:00, 대인광장 07:20, 각화동휴플러스 07:30 *다음카페 광주알프스산악회 ☎ 010 8743 8244
 - ▲광주산사모산우회 8월 26일(일) 완도 수목원-명사신리 해수욕장(단합대회), 영주 모아레포츠 입구 06:00,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06:35, 비엔날레주차장 06:50, 문화예술회관 후문앞 07:0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 ▲광주자연보전단사회 8월 26일(일) 세례봉 산녀남봉(665m) 전북 완주 불명산,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휴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 8월 29일(수)
 - ▲광주청록산악회 8월 29일(수) 경남 거창 금원산(1,353m)-기백산(1332m)/영주계곡,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9월 9일(일)
 - ▲광주자연보전단사회 9월 9일(일) 지리산 삼신봉(1284m) 경남 하동군,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휴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 9월 16일(일)
 - ▲빛고을무지개산악회 9월 16일(일) 부안 마실길 3구간, 07:00 영주체육관, 07:20 학동.중심사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7:40 광주역, 07:45 문예회관후문, 07:50 동광주웨딩프라자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 010 3620 2002

- 9월 30일(일)
 - ▲빛고을무지개산악회 9월 30일(일) 북설악 신선봉(1312m), 영주체육관 29일 23:50, 무등경기장 24:00, 동광주휴플러스 24: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에 관한 공고

(주)현승엔지니어(“갑”)와 (주)고담전력(“을”)은 2018년 08월 14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그 영업의 일부인 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분할되는 부분의 “갑”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 및 주주는 이 공고 게재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갑” (주)현승엔지니어
경기도 광명시 금호로 458, 906호 (소하동, 용신아트)
대표이사 이선미

“을” (주)고담전력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광명광길 129
대표이사 박봉순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세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완산대기발전소(이하 “을”)는 2018년 8월 15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분할되는 부분의 “갑”의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6일

“갑” 세광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학생운동길 52-1(죽림동)
대표이사 김진희, 정인용

“을” 주식회사 완산대기발전소(충청남도 태백시 대항길 62 (황지동) 사내이사 박정호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신과함께-인고연
2관	공작
3관	맘마미아2
4관	신과함께-인고연, 공작
5관	신과함께-인고연
6관	공작
9관	몬스터 호텔 3, 인크레더블 2
7관	세네케를 공작, 명탐정 코난 : 재로의 집행인
8관	세네케를 맘마미아2,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라벤타나 한 여름밤의 탱고	8.29(수) pm 7:3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11시 클래식 산책 가을 와인 콘서트	9.11(화) am 11: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천재 문화가, 애니메이션 거장을 만나다	9.20(목) pm 6:3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메이트리 '너의 목소리가 보여'	9.29(토) pm 7:3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